

아파트 시공 지역업체 늘린다

23일 원주시 롯데·호반건설과 30% 이상 참여 업무협약

【원주】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30% 이상 참여한 다.

원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기업도시에 신축되는 롯데캐슬 더 퍼스트아파트와 호반 베르디움아파트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롯데건설(주)이 기업도시 9블록에 신축하는 롯데캐슬 더 퍼

스트아파트는 지상 13~30층에 59㎡형, 84㎡형 등 1,116세대가 들어선다. 롯데캐슬 더 퍼스트아파트는 총 공사비 1,529억원 중 지역업체가 486억원 30.62%를 참여해 시공한다.

기업도시 8블록에 (주)호반건설이 신축하는 호반 베르디움아파트는 59㎡형, 84㎡형 15~29층 규모로 총 공사비 1,197억여원 가운데 지역업체가 365억여원 31%를 맡아 공사한다. 이날 양해

각서 체결로 지역업체들은 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을 아파트 건설 공사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주)호반건설은 불우이웃 서로돕기 캠페인인 천사운동에 1만 구좌 1,004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고명균 시 주택과장은 “관내 아파트 신축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공사들의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원주지역 업체에 '800억 공사' 배분

롯데·호반, 기업도시 아파트 건립 23일 시와 '공사비 30%' 양해각서

원주 기업도시 2곳의 아파트 단지 건립 공사를 통해 지역 업체에 총 800억여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풀린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호반건설은 원주 기업도시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키로 하고 최근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총 공사비의 약 30%를 지역업체에 배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원주시와 롯데건설, 호반건설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공동주택 건설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

롯데건설이 건립 예정인 아파트는 기업도시 9블록의 '롯데캐슬 더 퍼스트'로 지상 13층~30층, 총 1116세대(59㎡형, 84㎡형) 규모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총 공사비 1529억원의 30.62%인 468억여원을 지역업체에 배정키로 했다.

기업도시 8블록에 조성되는 호반건설의 '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지상 15층~29층, 총 882세대(59㎡형, 84㎡형) 규모로 총 공사비 1197억원의 31%인 365억원을

지역업체 참여 비율로 정했다. 호반건설은 또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1만 구좌(1004만원)를 후원키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내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지역업체 참여에 적극 동참해 주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대상을 10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로까지 확대한 만큼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주/정태욱